

신라문화 정수 황룡사 복원 본격화

경주시 1월 중 연구센터 착공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 복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올 1월 중 황룡사지 내에 '황룡사 연구센터'를 착공한다. 황룡사 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시·관리·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될 황룡사 연구센터를 위해 경주시는 2007년부터 설계와 부지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연구센터는 황룡사지 내 3만3천446㎡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909㎡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연구 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 포함 150여 억이 투입됐다.

1층에는 홍보영상관, 학예 연구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전시실, 관람 발코니,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또한 센터 내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제작 중인 황룡사 목탑 10분의 1 축소 모형도 전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황룡사 연구센터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원사업의 비전 제시 및 홍보로 복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황룡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주시의 황룡사 전체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황룡사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을 끝냈으며, 2015년까지 복원에 대한 심화 연구와 함께 기반·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황룡사 9층 목



경주 황룡사지 복원 조감도. 경주시는 올 1월 연구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황룡사 복원에 들어간다.

홍보·연구 기능 동시 수행

2014년 12월 완공 예정

전체 복원은 30년 간 추진

탑 복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황룡사 전체를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29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여억 원은 높이 72.9m인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는데 쓰인다.

또한 이 시기 황룡사 9층 목탑과 함께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알려진 5.7m 규모의 장육존상과 불상을 봉안하는 금당도 복원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마지막 단계로 동·서각당, 남회랑 등 황룡사 주요 부속건물을 복원한다. 특히 황룡사 동쪽 일대의 왕경유적지에는 스님들의 거주시설과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 시설이 들어서며, 황룡사 진입로를 중심으로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쇼핑거리, 숙박·음식을 판매하는 신라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시청 대외협력실에 황룡사 9층 목탑 1/20 모형 상류부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상류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전통기법으로 조성했으며, 높이 73.9cm, 황동제질에 순금 도금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황룡사 복원사업의 한 부분인 9층목탑 모형제작의 성과를 일깨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번 복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증 자료를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둠속에 보배 찾는 등불 돼야”

중산해남 스님 전승강맥 전수법회 해능·상락 스님 전강제자로 전수받아

중산해남 대강백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1월3일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 람림학당에서 개최됐다. 전등강맥 전수법회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불교의식으로 전강법사인 통도사 전계대화상 중산해남 대강백 스님으로부터 의천해능 스님(람림학당 원장), 교해상락 스님(법주사 산내암자 관음암)이 전강 제자로 강맥을 전수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해남 스님(통도사 전계대화상), 덕진 스님(울산사암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남 스님은 법어에서 <화엄경 왕복서(華嚴經 往復序)>를 인용 “캄캄한 어둠 속에 보배가 있다해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중산해남 대강백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1월 3일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 람림학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상락 해남 해능 스님 순.

가 없고, 불법이 아무리 좋아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법문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비록 텅 비고 비어 자취도 끊어졌지만 ‘의천(義天)’의 발빛이 잔연히 빛나고, 담담하고 담담하여 언설의 길 없지만 ‘교해(敎海)’의 파랑은 호한하도다”며 두 제자에게 전법계를 전수하고

‘의천’, ‘교해’란 법호를 내렸다.

이날 전법계를 전수받은 해능 스님과 상락 스님은 “온갖 장애를 여의고 이제 불일중취와 범륜상전의 큰 서원을 발하여 부처님의 전승강맥을 받으니 물러남이 없이 정진하여 성불할 것”이라고 전법의 큰 원력을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생명나눔, 100원 희망콘서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스님)는 구랍 26일 부산동구정 대강당에서 '제7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개최했다.

생명나눔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장기기증운동을 통한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로 본부장 원범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을 비롯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부산본부장 원범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부자”라며 ‘100원 불씨 콘서트’의 따뜻한 마음들이 난치병 환우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되는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2012년 생명나눔 활동보고와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에 이어 올 해의 100원 희망저금통 수여자로 이아진(7세, 여)양을 선정했다.

이양은 선천성 퇴행질환을 앓고 있으며



생명나눔 콘서트중 피아노 연주 장면.

이날 행사에 모금된 100원 희망저금통은 총 300여만원으로 향후 전달할 계획이라고 주최측은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보시함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세모(歲暮)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있어 마음이 훈훈해진다. 자선냄비에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보다 살기 각박한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보시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때부터 있어왔다. 죽림정사를 지어 공양한 범비사라왕이나 기원정사를 보시한 수닷따 장자는 보시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큰 재물을 보시하여 부처님이 안락하게 수행할 수 있고,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린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이들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부처님께 보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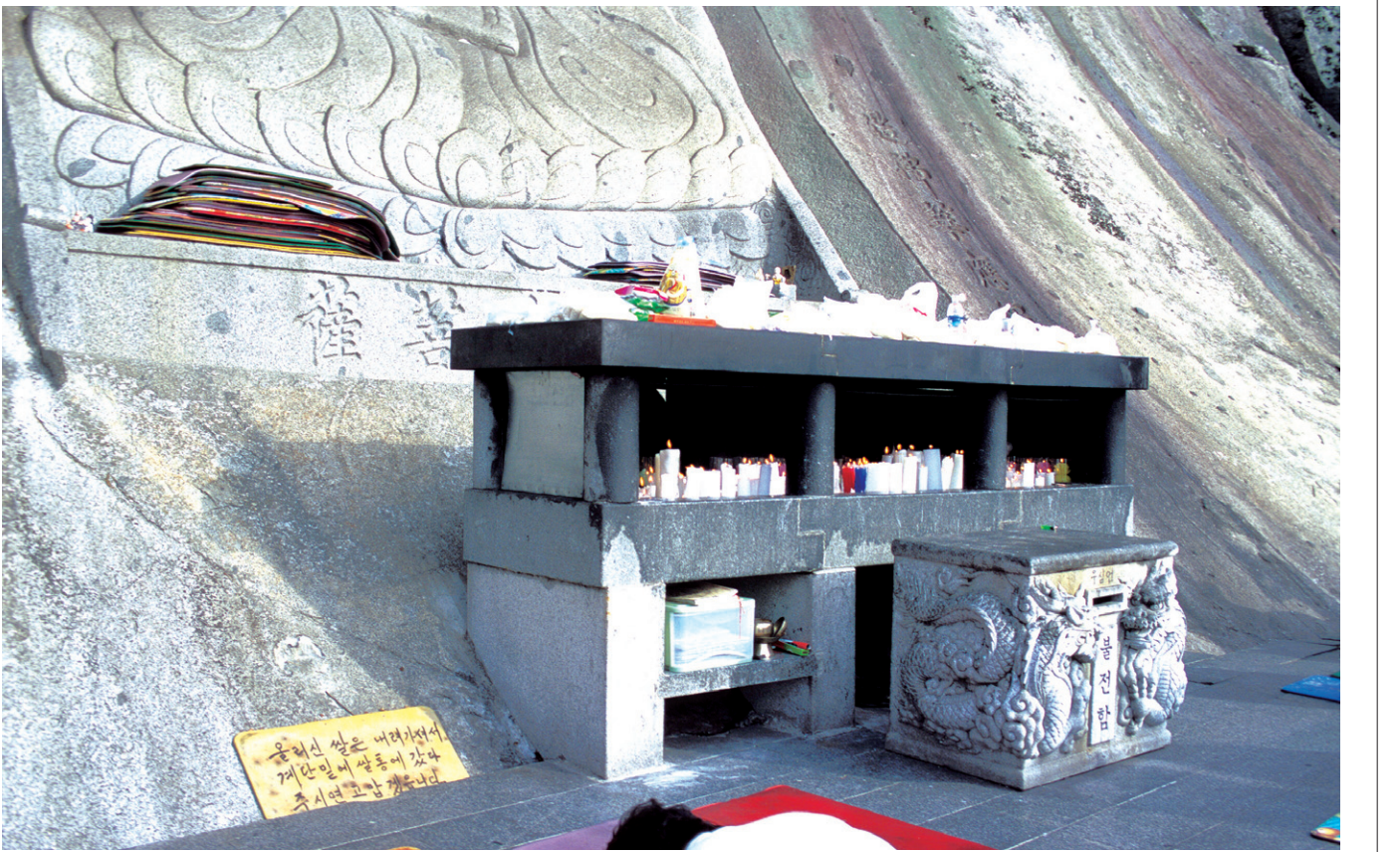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 부처님께 아주 작은 촛불을 공양함으로써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린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아름다운 보시의 표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사찰에 가면 이곳저곳에 보시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시를 원하는 이들이 쉽게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것이다. 야외에 설치한 보시함은 돌로 만든 것이 많고, 법당내부에 설치한 보시함은 대부분 나무로 만든다. 보시함이 언제부터 우리 사찰에 도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지 스님들께 직접 보시금을 드리던 것을 아무도 모르게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보시함을 만들

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시의 마음을 주변이 알지 못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보시함은 사찰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러 절에서 이 보시함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거나, 보시함을 너무 크게 만들어 보는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크기도 그렇지만 ‘보시함’이라는 글자를 너무 크게 새기고, 커다란 자물쇠를 보이게 달아놓아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물론 부처님을 모신 곳에 일일이 보시함을 놓고, 보시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고, 그것이 보시함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쓰고, 보시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물쇠를 달아 놓는 것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보시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자비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계사년 새해에는 보시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행하여지듯이 보시함도 꼭 있어야 할 곳에 작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지나치게 화려한 불전함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인천 B사찰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은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법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선운사 성보박물관
백파사상연구소
미당시문학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은 누리에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원사

주지 마이운
부주지 최원허
총무 조고담
교무 전지암
재무 김미산
기획 이동훈

봉원사 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미타도량 성불사

주지 종명

성불사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15-1번지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http://www.seungbulsa.com